



“남북미 3자회담 가능성도”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청와대

시리아 내전 7주년...월드비전, 난민캠프 아동 실태 보고 발표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시리아 내전 발생 7주기를 맞아, 난민캠프 아동 실태 보고서 ‘생존을 넘어(Beyond Survival)’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시리아 내전에서 살아남아 현재는 안전한 난민캠프에 거주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난민 아동들의 스트레스를 조사함으로써 분쟁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다.

월드비전 연구팀은 시리아 난민 아동들이 많이 거주하는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난민캠프 내 11~17세 아동 1,254명(소년 629명, 소녀 62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남부 시리아에서 409건, 요르단에서 378건, 레바논에서 467건의 인터뷰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일상 생활에서 아동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영역은 삶

의 기본권 중 하나인 주거에 대한 부분이었다. WHO에 따르면 한 방에 2.5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을 과밀집 주거(overcrowded housing)로 정의하고 있는데, 레바논 난민캠프 아동의 80%, 시리아 및 요르단 난민캠프 아동의 73%가 과밀집 주거 환경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밀집 주거에 살고 있는 아동은 일반 주거 환경에 사는 아동보다 가정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두 배 높았으며, 학업 생활에 불안함을 느끼거나 학습 장애를 나타나는 경우도 더 많았다.

또한, 난민 아동들의 상당수가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리아 난민캠프 아동의 절반이 가정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시리아 50%, 레바논 39%, 요르단 15%), 레바논 난민캠프 아동의 절반 이상이 아동 노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레바

논 55%, 요르단 11%, 시리아 8%).

이 밖에도 난민 아동들을 위한 정서적·신체적 치유 프로그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3개 국가 모두 70%가 넘는 아동이 학교에서 충분한 심리적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과반수 이상의 아동이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번 보고서는 아동들이 고향을 떠나 난민캠프에 이주함으로써 겪고 있는 다양한 일상적 스트레스를 보여주며, 분쟁이 어떻게 아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보여준다. 월드비전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난민 아동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실제 난민 아동들에게 필요한 사업 분야를 면밀히 파악해 올해 분쟁피해지역 아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월드비전 시리아 긴급구호 본부장 원 플래튼은 “분쟁지역의 아이들이 또래의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길 바란다”며 “시리아 난민 55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아이들이인 상황으로, 아이들이 분쟁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어른들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월드비전은 분쟁피해지역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5일(목) 분쟁피해지역 아동보호 캠페인 ‘아이옴(I AM)’을 런칭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리아 내전 발생 7주년을 맞아 분쟁피해지역 아동이 겪고 있는 어려운 삶의 실상을 알리고, 난민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월드비전은 2021년까지 온라인, SNS, 바이럴 영상 등을 통해 난민 아동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나래 기자

한국 순교자의 소리, 24시간 위성 라디오 방송 개시

“한국 순교자의 소리의 사명은 기독교인 순교자들의 목소리가 침묵에 묻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위성방송은 박물관에만 머물던 순교자들의 설교와 이야기들을 들려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 전역의 남북한 기독교인들이 순교자들의 삶을 모범 삼아 배우고 그들의 가르침을 살아있는 메시지로 다시 한번 듣게 될 것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폴리 현수 대표에 따르면, 초대교회는 순교자를 세 종류로 분류했다. 빨간색 순교자, 초록색 순교자, 그리고 하얀색 순교자가 바로 그것이다.

“순교”라 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은 빨간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초록색 순교자와 하얀색 순교

자 또한 존재합니다. 초록색 순교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계획, 목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말입니다. 하얀색 순교자들은 ‘세상’에 대하여, 즉 세상의 계획, 목표,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위성 라디오 방송은 이 세 종류의 기독교 순교자들의 가르침을 모아 송출한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10년 이상 가장 강력한 단파 라디오 주파수 중 하나를 북한에 송출해왔고(7510kHz 매일 30분 한국 표준시 00:30-1:00), 2018년 1월부터 AM 주파수를 추가로 송출했다(1431 AM 매일 30분 한국 표준시 23:00-23:30). 현속 폴리 대표에 의하면 아시아 전역에 늘

어나고 있는 한국인들의 위성 라디오 수신율에 맞춰 이 새로운 주파수가 설계됐다.

“이 위성방송은 아시아 전역에 있는 한국인들, 즉 남한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도달할 것입니다.” 여기 한국에서도 별도의 구독이나 결제 없이 C밴드 위성 접시를 통해 방송을 들을 수 있다. 아래에 방송 정보가 안내되어 있으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 순교자의 소리 사무실(02-2065-0703)로 전화하면 된다.

이번 달,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새 위성방송 채널의 개시와 이 방송을 통해 조선어 스테디 성경 낭독 및 국제 오디오 성경 녹음 단체 ‘FCBH’(Faith Comes By Hearing,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가

극화한 신약성경 낭독이 한 달 동안 송출되는 것을 기념한다. 조선어 스테디 성경은 한국 순교자의 소리(02-2065-0703)를 통해 25,000원 이상의 기부금을 낼 경우 구매가 가능하다.

본 위성방송의 많은 콘텐츠는 한국 순교자의 소리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VoiceoftheMartyrsKorea>)에서도 들을 수 있다.
위성 : ABS-2 @ 75도 동쪽
주파수 : 3740 MHz
편파 : 수직
FEC : 5/6
변조 속도 : 33 MS / s

홍은혜 기자

文대통령 “진전상황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그것도 군사분계선 남쪽 우리 땅에서 열리는 것은 사상 최초”라고 지적했다.

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라는 목표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단계하게 준비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앞선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지만, 결과가 어땠나”라며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 사이 합의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평양뉴스

美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예년 수준…모든 춘계훈련도”

미국 국방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기간이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는 입장은 독수리 훈련을 비롯한 봄에 실시되는 훈련 모두를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1일, 미국 측이 군사훈련 일정이 예년과 비슷하다고 밝힌 이유는 봄철에 실시되는 훈련들을 포함했기 때문이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대해 “정확하다”고 VOA에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말한 훈련 기간은 봄철에 이뤄지는 모든 훈련을 뜻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한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독수리 훈련이 예년보다 1개월가량 적은 기간인 약 4주간 실시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20일 미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년과 같은 규모와 같은 범위, 같은 기간 동안 진행된다고 보도해 한국

내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훈련 규모를 축소 발표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한국 언론들은 한국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의 발표는 공군 연합훈련인 맥스컨더나 기타 훈련을 포함해 지난해와 같은 기간 동안 이뤄진다고 말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19일 성명에서 올림피아드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던 독수리 훈련과 키 리졸브 훈련을 4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훈련이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며, 북한 측에 연승 일정보, 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임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례대로 종립국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 준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훈련을 참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평양뉴스

세기총, 이주민봉사단과 함께 밥 사랑 나눔봉사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세기총)는 지난 주에 제6차 총회와 대표회장 취임식을 마쳤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려움에 처한 자 등과 함께하는 것으로 그 첫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최근 서울역 부근 밥교봉사단체인 신생교회에서 대한민국이주민(다문화가족)희망봉사단과 함께 밥교 봉사를 가졌다.

이날 봉사는 세기총 여러 임원들과 사모들 그리고 지난해 세기총에서 조직한 “대한민국이주민희망봉사단”인 결혼이주민여성 10명이 함께 봉사에 참여했다.

밥교봉사는 오전 11시에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와 함께 드리는 밥사랑 나눔예배”로 시작하였는데 기도예 김군배 목사(미얀마 선교사), 격려사에 원종문 목사(세기총상임회장), 봉헌기도에 나득환 장로(세기총법임감사), 인사 및 광고에 신광수 목사(세기총사무총장), 축도에 최낙

신 목사(세기총 상임회장), 식사기도에 전영현 목사(세기총 상임회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설교는 세기총 제6대 신임대표회장인 정서영목사가 로마서 8:28의 본문으로 ‘함께하여 선을 이루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에 이어 목도리와 세기총 상임회장인 최낙신 목사가 후원해 준 알로에 에센스 크림을 참여한 봉사자들과 함께 일일이 나누어 주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이어 밥교 봉사를 가졌다.

한편 세기총은 “이번에도 참여한 이주민가정들은 봉사를 통해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인 노숙자들을 섬기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주민 가정들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계속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나래 기자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우리는 하나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함께 개최되기를 바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성명서

1. 올해 우리는 30년 만에 다시 한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세 번에 걸친 온갖 노력으로 이루어낸 도전의 결과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은 2월 9일 개회식부터 25일 폐회식까지, 패럴림픽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면서 막을 내렸다. 북한의 평창에서도 수 많은 선수들이 경쟁 보다는 우정을, 결과보다는 과정 안에서,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과 ‘열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Passion moves to us)’란 슬로건을 이행해 넘으로써 온 세계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 개막식 동시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여, 북측에서 선수단을 비롯한 대표단, 응원단, 예술단을 보내움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이 명실공히 ‘평화의 올림픽’임을 세계에 널리 드러내었다.

2. 이제 오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49개국 570명의 선수가 참여하면서 또 다시 개막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첫 장애인자올림픽을 개최했다. 당시 조직위



NCKC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 황필규 목사

원회와 보사부는 올림픽을 “극복의 올림픽”, “평등의 올림픽”, “참여의 올림픽”이라고 명칭을 붙이면서 선전을 했다. “그러나 선수들을 제외한 장애인의 참여가 없는, 아니 참여할 수 없는 정상인(비장애인)의 잔치일 뿐이며, 장애자 문제를 은폐하고, 대한민국 400만 장애자의 실질적 복지 향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발견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장애인들에 대한 불평등, 좌절, 소외의 근원은 장애인 당사자로부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극복이 방해를 받았고, 평등한 대우가 거절되었고, 참여 기회가 박탈되었기에 지금의 아픔이 누적된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왔다.

그리고 “이런 외부 요인의 주체는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국가와 정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복지담당자들의 무지 등으로 제도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3. 우리는 30년 한 세대가 지난 지금 2018년 패럴림픽에 49개국 570명 선수가 참가(북한 선수 2명 포함)하는 것을 직면하면서, 장애인 선수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참여의 올림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본 위원회와 함께 하는 교회 교우들 200여 명이 응원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참여하였다. 이번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 여러 단체들이 참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참여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제외되는 그룹들이 절대 다수였다.

일반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참여하는 변화가 있었지만, 공영방송의 중계와 보도 정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실망감을 금할 수는 없었다.

4. 또한, 88년 장애인자올림픽 당시에 한 장애인 선수의 증언에 따르면, “경기장 시설과 기자촌 등의 시설은 선진화 되었는데, 장애인 선수들의 모습은 후진화였다면서, 당시 319명의 선수들 중 메달을 따지 못한 200여 명은 큰 좌절감에 빠졌는데, 이는 올림픽 정신의 하나인 ‘극복의 올림픽’이 아니라, 연금을 따기 위한 ‘방편의 올림픽’이었다.”는 고백을 했었다.

이런 증언에 대해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시행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과 권리 등에 있어 그 당시에 비해 큰 변화가 있지만, 패럴림픽 참가 장애인 선수의 양상을 위한 장애인(재활)체육 지도자와 시설(체육관 등) 확충을 통한 인프라 구축 문제는 여전히 시급한 사항이다.

5. 그러면서, 패럴림픽 운영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전환을 요청한다. 패럴림픽은 1988년 올림픽부터 동일한 장소와 시기에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비장애인들의 모든 경기가 끝난 후에 장애인들만 모여 하는 경기였다.

모두가 인지하다시피 비장애인들의 올림픽 경기는 그야말로 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거워하는 세계인의 축제이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패럴림픽은 쓸쓸하고 황량하기 그지 없었다. 보여주는 관중이 없는 경기장에 장애인 선수의 가족들 몇몇만 함께 할뿐이었다.

그런데 이번 2018 평창동계 패럴림픽에서 우리는 작은 변화로 인해 큰 감동을 맛보게 되었다. 우리나라 대통령 내외가

개막식과 폐막식에 직접 참석하여 관심을 보여주었고, 더욱이 한국 올림픽 선수가 참여하는 게임들에 대통령 부인이 가까이 참여하여 온힘을 다해 응원해 줌으로써 많은 국내외 선수들과 응원에 참석한 이들에게 격려가 되었다. 또한, 수 많은 자원봉사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 8만 5천여 명의 패럴림픽의 평화로운 진행을 위한 제철작업, 이동, 안내 등의 협력이 있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우리는 국제올림픽 위원회가 향후 올림픽과 패럴림픽 운영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전환을 해주기 바란다. 두 개의 올림픽이 아닌 하나의 올림픽 즉,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올림픽 개최를 요청하고자 한다. 어떤 그룹도 관심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비장애인들의 더 큰 관심과 배려 속에서 올림픽이 한발 더 도약하는 모두의 축제가 되기를 고대해 본다. 어떤 모임이든 상관없이 장애인이 배제 되어선 안 된다.

‘평등’, ‘참여’, ‘극복’의 올림픽 정신은 그 게임 진행에서부터 철저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패럴림픽이 없어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기간 안에 함께 하는 올림픽이 되길 소망한다.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정신인 ‘평화’, 즉 막힌 담을 허물어 장벽 없는(barrier free)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부단한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3:28)

국가 기관들의 위험한 ‘성’인식, 모럴 헤저드(Moral Hazard) 조장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우리 사회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겹잡을 수 없이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 으뜸은 ‘동성애’일 것이다. 동성애는 마치 우리 사회에서 용인된 것처럼 ‘성소수자’로 포칭하여, 단골 메뉴처럼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범위에는 다양한 사회학적 성이 있다. 그러한 소수의 성을 인정하려면, 근친상간, 수간자(獸姦者), 아동성애자 등 우리 사회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서 되는가?

그런데 이런 성의 문제에 대하여 관대하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은 놀랍게도 국가기관들이 아닌가. 그것에 가장 선봉에 선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지난 해, 기독교 학교로 출발한 한동대에서는, 학교에 미등록된 학술 동아리에서 한 학생이 페미니즘 강연을 하였다. 그 내용은 매춘과 다자연애와 동성애를 두둔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그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줬지만, 끝내 그 기회를 살리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학교의 해당 학생 징계에 대하여 조사한다면서, 조사관이 말하기를 ‘양성애자들도 집단 난교(亂交)를 하잖아요. 다자연애에 대한 비판은 차별’이라고 했다 한다. 그런 정부기관에서 나서서 국민들에게 난교(亂交)를 권장한다는 것인가?

아무리 헌법에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행복과는 상관 없는 무질서와 비도덕성을 나타낸 말이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런가 하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플레이 보이-한국판’

1월호에서 전라(全裸)의 여성의 자태를 묘사한 삽화와 여성의 가슴이 노출된 화보, 그리고 ‘자위의 세계’를 표현한 내용

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볼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책은 당연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또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EBS 교육방송이 음란성으로 채워진 “까칠남녀” 방송 내용에 대하여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방송은 청소년들이 주 시청대상인데, 방송에서 동성애 문제, 노골적인 자위행위를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방송을 내 보냈다.

방송을 본 학부모들은 이것이 교육방송이 아니라, ‘음란 방송’이라고 항의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송물에 대하여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방송심의위원회에서조차도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방송의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 유지에 관한 것을 위반한 것이고, 윤리성에 관한 규정, 성 표현에 관한 규정, 품위 유지에 관한 규정,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 함양에 관한 규정 등을 무시한 것이 된다.

이렇듯 우리나라 국가 기관들과 공공기관들이 성적 기준에 대하여 관대하게(?) 관리하는 동안, 우리 청소년들은 ‘음란 문화’와 무분별한 성적 세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우리 청소년들이 고스란히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기관으로서 할 일인가?

국민들의 올바른 성의식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에 대한 윤리와 도덕, 사회적 질서 유지와, 헌법적 가치를 심어주고, 세뇌주는 것은 당연히 국가기관들의 몫이다.

그런데 그런 국가 기관들이 국민들이 가진 정서만도 못한 생각과 기준을 가졌다면,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아닌가?

국가 기관은 어느 특정 일부의 비뚤어진 사람들의 생각과 성적 오/남용에 대하여 대변할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모름지기 국가 기관은 국민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차라리 간판을 내리는 것이 낫겠다.

인종차별은 반인류적 범죄이며 죄악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 성명서

성경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된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인간이 신의 숨결을 통해 생명을 얻었으므로, 기독교는 이들 모두를 고귀하고 숭고한 존재로 고백한다. 1966년 유엔 총회는 “모든 인간이 존엄한 존재이므로 인종에 의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인권 기준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3월 21일



NCKC 정의평화위원회 남재영 위원장

을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정한 바 있다. 우리는 이 날의 의미가 기독교의 인간관과 가치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의 수가 200만을 넘으며, 이 중 100만 이상의 노동자와 수십만의 결혼 이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사회적 폭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산업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각종 노동착취에 시달리며 직장 이동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결혼이주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성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피부색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는 피해도 적지 않으나 사회적 관심은 기대하기 어렵다. 인터넷과 각종 커뮤니티에는 외국인에 대한 각종 혐오 표현들이 넘쳐나고 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 정부를 향해 이주노동자들이 당하는 강제노동과 노동착취가 명백한 인종차별이므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종차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여성 이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해왔으며, 이주민이 겪는 사회적 차별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여 올해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기

만 하다.

우리는 2018년 국제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환대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금년 내에 헌법 개정을 통해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꿈으로써, 모든 인간이 소중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2. 또한 인간에 대한 인종적 차별이 가혹한 폭력이나 범죄인을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과 관련 법률을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사람에 대한 모든 차별과 혐오에 결연히 맞설 것이며, 모든 인간이 가진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회적 협력과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기록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편집장 장세규	교계편집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 모바일용 mykids.www.or.kr로 접속해주세요.

mykids.www.or.kr

32년 전통을 세우신

- 월드비전 Family Care와 함께 아동을 돕고자 하는 기독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신원을 보호하거나 위험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 1회 후원금(매달)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후원금용 후원 번호

- 월 3만원에서 후원금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동의 영양, 보건, 교육, 교육 및 의료에 사용됩니다.
- 회계후원은 한 달에 1회 보고서를 넣어 후원금과 한 달에 1회 사용됩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퀴어신학, 동성애를 ‘가증한 일’로 정죄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한다

퀴어 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 (III)

0. 머리말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 데도 정통신학자들과 퀴어 신학자들의 동성애 관련이 왜 다른가 라는 질문이 나온다. 이에 대한 대답이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같다 하지만 하나님 신앙과 세계관의 기본이 되는 성경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퀴어 신학자들은 성경을 단지 문화적 산물로 보면서 문화적 해석에 따라서 동성애를 시대적 문화적 방식으로 보면서 성경은 이를 거부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정통 신학자들은 성경을 단지 문화적 산물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으므로 “동성애는 가증하다”는 성경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동성애 이슈는 단지 개인이나 교단의 신앙적 취향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교회가 그 기록성을 지키느냐 아니면 이 시대의 (성적) 해방의 물결에 휘말려 정체성을 상실하느냐 하는 교회의 순결성과 신자의 거룩성을 지키는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라고 본다.



살롬나비 상임대표, 기독교학술원장, 송실대 명예교수 김영한 박사

1.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초월해 모든 종족과 문화에 보편적으로 타당한 인간 삶과 윤리의 기준이다.
퀴어 신학자들은 성경은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는 책으로 보고 인간의 편견과 오류가 뒤섞여 있는 책으로 본다. 다음 문장은 성경에 대한 퀴어신학자의 견해이다: “성서는 인간과 인간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담은 책이지만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오류가 있는 책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불완전한 생각과 지식을 통해 알려지고 표현되고 기록되었다. 시대와 지역의 종교 문화적 제약과 한계 속에서 성서의 저자들은 성서를 썼다. 따라서 성서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의 편견과 오류가 뒤섞여 있다. 우리는 성서에서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와 시대의 제약 속에 있는 인간의 편견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의 편견을 구별하지 못하면 자유롭고 책임적인 신앙인이 될 수 없다.”

퀴어 신학은 위의 문장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의 문화적 편견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동성애에 대한 비난하고 정죄하는 구절은 그 시대와 지역의 종교문화적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 정통신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성경관은 자유주의적 성경관으로서 성경을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문화적 편견을 벗어난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는 것

로 보는 역사적 정통적 기독교의 성경관과는 다르다.
정통 개혁신학의 견해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동시에 인간의 말씀이며, 비록 문화적 옷(고대 히브리어와 중동 아시아의 문화)을 입고 있으나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윤리적 규범은 시대를 초월한다. 그 구체적인 예로 모세 시대에 주어진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타당하다. 다른 신 경배 금기, 우상 숭배 금기, 하나님 이름 훼손 금기, 안식일 지킴, 부모 공경, 살인 금기, 간음 금기, 도둑질 금기, 거짓증거 금기, 탐욕 금기 등은 오늘날 그대로 타당한 것이다. 구약시대의 의식법(정결례) 등은 문화적인 것으로 오늘날에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그 영적 의미는 오시는 그리스도의 회생을 그림자로서 지시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타당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정통 개혁교회는 성경에 인간의 시대적 편견과 오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비록 2-3천 년 전 성경의 저자들, 모세나 선지자들이 율법서와 예언서를 썼다 할지라도 비록 그 시대의 언어를 사용했으나 성경의 교훈은 시대적 문화의 제약과 한계를 넘어서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십계명을 오늘도 청교도 순례자의 전통을 이어가는 미국의 남부 주에서는 그대로 지키고자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후예인 역사적 개혁교회는 2-3천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십계명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예배시간에 읽고 지키기를 다짐하고 있다. 로마서 9장 17절의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라는 구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8절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등을 보면 성경이 지킴기를 다짐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자 그분의 권위임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성경만이 최고, 최선, 최종의 권위를 지닌다.

2.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이야기 해석
퀴어 신학은 “동성애 비난과 정죄란 2-3천 년 전 고대사회의 종교문화적 편견과 오류에 입각하고 있다”고 다음같이 주장한다: “성서에는 동성애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구절들은 고대 사회의 종교 문화적 편견과 오류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성서구절들을 내세워 동성애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2-3 천 년 전 고대 사회의 종교 문화적 편견과 오류를 21세기 인간과 사회에 강요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롭고 성숙하고 책임적인 기독교 신앙인이 되려면 동성애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성서의 구절들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성서구절에 매이고 집착하는 것은 현대인의 상식과 교양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퀴어 신학의 해석은 성경 본문에서 벗어나는 젠더 이데올로기적 해석이다. 퀴어 신학자들은 소돔 사람들의 행동은 동성애가 아니라 불친절의 죄라고 다음같이 왜곡한다: “소돔 이

야기에 대한 현대 해석자들은 소돔 사람들의 동성애적인 동기가 있다고 잘못 해석하였다. 롯의 손님들이 소돔 사람들이 느꼈을 법한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소돔 사람들은 성적인 요구를 만족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손님들을 향한 우월성과 힘이 있음을 보여 주려는 의도를 가졌다. 그렇기에 롯의 딸들은 이러한 욕구의 대체자가 될 수 없었다. 이야기의 초점은 손님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행하려는 것이 아니었다.”(M. Nissines, Homoeroticism in the Biblical World: A Historical Perspective, tr. by K. Stjern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8, 49)

그러나 정통 개혁교회는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기사(記事)는 동성애 사건을 다룬 것이라고 해석한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창 19:5)는 구절은 소돔 사람의 동성애 행위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이끌어 내라...상관하리라”는 말은 친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롯이 그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창 19:7).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창 19:8b)고 간청하는데서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롯은 이들의 악행을 막기 위하여 자기의 딸들을 내어주겠다(창 19:8a)고 타협하고자 한다. 8절에 롯의 두 딸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Yadah)는 구약에서 948회 사용되었는데, 창세기에서 사용된 12회 가운데 10회가 성교를 뜻하는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본문에 안을 제시한 것이다. 본문은 소돔 고모라 불량배들이 동성끼리 성적으로 결합하는 동성애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일방적인 성폭행을 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하는 행위를 보여준다.(R. A. J. Gagnon,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Texts and Hermeneutic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73) 본문은 불량배의 이러한 동성애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런 범죄인 것을 고발해주고 있다.
퀴어 신학자들은 에스겔이 16장 49-50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한 가지 죄악 때문에 멸망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본문의 구조를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 다음에 접속사 “그리고”가 나온 다음에 또 한 가지 죄인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열거하고 있다. 레위기18장22절에 의하면 동성간 성교는 가증하다(?????, 토에바)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단지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죄 때문만은 아니라 동성애라는 가증한 죄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신약 유다서 7절은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색”(σάρκη? ??:?ρα?, other flesh)을 따라 가다가 멸망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다른 색(色)(other flesh)

이란 동성애를 말한다.
사사기에 기록된 불량배들의 동성애 기사: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사 19:22)는 동성애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런 범죄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 동성애는 천부적인 남녀 간의 이성애(성(性)) 질서를 전복시키기 때문에 정상인(이성애자)인 성다수자들에 의하여 비난을 받는다. 이러한 비난은 ‘도적질’에 대한 윤리적 평가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창조 질서로서 주어진 성적 질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타당하다. 남녀 간의 이성애가 바른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존속시키는 올바른 성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서 현세에서는 변하지 않는다.

3. 레위기의 동성애 금기 명령 해석
이러한 창세기의 동성애 금기 명령은 레위기의 동성애 금기 명령과 일치한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리고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은 둘 다 명료히 동성애 금기 명령을 말해주고 있다. “가증하다”(?????, 토에바)라는 표현은 성적인 죄들이 가증하다는 것을 가르킨다(레 18:26-27, 29-30). 동성애 금기사항에 대하여 “가증하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레 18:20; 레 20:13)은 주목할 만하다.

퀴어 신학자 보스웰(J. Boswell)은 가증하다는 용어가 강간이나 도둑질 같은 윤리적인 악이 아니라 돼지 고기를 먹거나 월경 같이 제의적인 부정(不淨)으로 해석한다. 퀴어 신학자 버드(P. A. Bird)도 “가증하다”는 용어는 윤리적 용어가 아니라 제의적 용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견해는 정통신학자 배정훈이 다음같이 반박하는 바 같이 성경결론에서 나오는 제의적인 부정과 인간의 윤리적인 범죄를 혼동하고 있다.
레위기 1장 -16장(제사법전)과 17장 -26장(성결법전)이 언급하는 부정(不淨)은 제의적인 부정(不淨)이다. 예컨대, 부정(不淨)한 짐승을 먹거나, 산모가 아이를 낳거나, 유출병으로 인해 부정(不淨)하게 되는 일은 인간의 책임자야할 윤리적(倫理的)인 부정(不淨)이 아니라 목욕이나 제사를 통하여 정(淨)하게 회복되는 제의적(祭儀的) 부정이다. 이에 반해서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가증하다고 금기하는 윤리적인 부정(不淨)에 해당하는 죄는 제의적인 부정(不淨)이 아니라 “죽일지니라”라는 표현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代價)로 바쳐야 하는 죄다. 동성애는 살인처럼 가증한 것으로 백성들이 터덜터덜하고, 그로 인하여 땅이 더러워지고, 나아가 땅이 거민을 토해내는 형벌로 이어지는 죄다(레 18:24-30; 20:22-27). 동성애는 목욕이나 제사를 통하여 씻어 낼 수 있는 제의적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로서의 성 질서에 대한 위반으로서 가증스러운 윤리적인 부정임이 죄된 행위다.



과거 서울 신촌 연세로에서 진행된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는 지나친 노출과 선정적인 퍼포먼스로 큰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퀴어신학은 이런 모든 동성애자들의 활동의 근거가 되는 사상을 제공한다. 기독교일보DB

4. 이성애가 바른 (성) 질서이고, 동성애는 성중독으로 이성애의 변태(變態)다.
수천 년 전 소돔과 고모라 주민의 동성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런 죄악이라면 오늘날에도 그것은 가증스런 죄가 된다. 하나님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계시는 인격적 거룩한 존재이시기 때문이다. 창세기, 레위기, 사사기에 나타난 동성애 판단은 결단코 고대사회의 종교 문화적 편견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자이신 하나님의 판단이시기 때문이다. 퀴어 신학자들은 이러한 구약 성경 구절이 “현대인의 상식과 교양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고 “오늘날 21세기에서 자유롭고 성숙하고 책임 있는 신앙인은 동성애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구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인간중심주의적 세속주의 관점에서 왜곡하는 것이다.

퀴어 신학자들은 동성애를 창조 질서라고 다음같이 왜곡한다: “성서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음을 말해준다. 동성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위 문장에서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 증언을 왜곡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하게 이성애자로 창조하셨지 동성애자로 창조하시지 아니하셨다. 창세기는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을 가정과 번식의 원리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르다”(창 2:14). 동성애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에 의한 창조 질서의 왜곡이다. 창조 질서로서 주어진 이성애의 변태다. 하나님은 인간을 동성애자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성애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을 도우도록 다른 동성(同性)존재 아담을 짓지 아니하시고 이성(異性)존재 하와(여성)을 지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로 이끌어 오시니”(창 2:22). 이는 최초의 남녀로서 하나의 짝을 이루어 인류가 저들이 이룬 결혼에서 번식하도록 하신 것이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간의 원죄 타락 이후에 6장에 성적 타락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창 6:2-3). 인간의 성적 타락은 이성애 타락을 넘어서 동성애 타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창세기 6장에 언급된 이성애 타락은 부부 아닌 남녀 다자(多者) 간의 성적 결합(polyamory)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인간은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 영성을 상실하고 육체(basar, flesh)가 되어 버렸다. 동성애 타락은 창세기의 소돔 고모라 주민의 동성애 악(창 19:5)에서부터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로마시대 사람들의 동성애를 다음같이 정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롬 1:26-27). 순리(順理)란 자연(the nature)에 따른 성의 사용(the natural use of the sex)을 말하는 것이다. 순리란 이성(異性) 간의 성적 결합을 말하며, 역리(逆理)란 동성(同性) 간의 성적 결합을 말하고 있다. 이는 자연에 거슬리는(against the nature) 성의 사용이다. 이러한 역리적 사용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일”(the shameful)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상당한 보응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로 간주된다. 동성애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성 중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아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되고 성결되며 사랑받을 수 있다. (계속)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불편한 진실”

성서일과: 민수기 21장 4-9절, 에베소서 2장 1절-10절, 요한복음 3장 14-21절

저는 오늘 봉독한 성경을 두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째는 사순절의 한복판인 이 사순절 넷째 주일에, 성서일과는 하필이면 왜 이 구절을 배치했을까하는 문제입니다.

공관 복음에는 사순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배치하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잘 정리하고 있지만, 요한복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 누가 복음은 처음에 예수의 족보를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요한복음은 이와는 달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씀부터 시작합니다.(요 1:2-5)” 좀 더 설명하면 공관복음은 인간의 모습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가를 변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이런 변증적 설명 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뒤 십자가 사건의 직접적 계기가 되는 성전 정화를 행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없는 요한복음을 왜 사순절 한복판에 본문으로 배치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미투(#Me Too)운동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또 이 문제를 성경 말씀과는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얻은 결과는 이렇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한국사에서 암울했던 시절의 한 이야기,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인권을 무시했던 보안사에 끌려갔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보안사는 그 청년에게 회유와 협박을 합니다. “우리에게 협조를 하면 공평한 집안 살림도 도와주고, 유학도 보내 줄 테니 우리의 프락치가 되라. 그렇지 않다면 너 하나 없애서 처러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



살롬나비 상임대표, 기독교학술원장, 송실대 명예교수 김영한 박사

니다. 잘 선택하라.” 지금이야 어이없는 것이지만 군사독재가 이어지던 당시는 권력기관의 일은 불법도 정당화되던 시절입니다.

고민하던 이 청년은 NCCK를 찾아 양심선언을 결심합니다. 당시 NCC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제 입장에서는 찾아온 청년의 말을 고스란히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보안사의 역공작일수도 있다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믿을 만한 사람들과 2-3일 함께 지내면서 진위여부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찰결과 이 청년의 결심은 진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일담이지만 이런 결심을 했던 청년은 죽을 용기를 내어 NCC를 찾아 갔는데, NCC가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하더라고 말합니다. 저는 당시의 불법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고발과 정을 보면서 최근의 미투 운동과 견주어 봤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고발하고 있는 여성, 그 여성은 자신의 미래에 어떤 희망을 걸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답답해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투에 참여하는 여성의 참담한 감정을 생각하면서도, ‘나는 농담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나 역시 다른 여성에게 피해를 준 일은 없었을까’ 하는 자기검열도 일어납니다. 혹시 내가 여성들에게 성차별적인 편 하 발언은 하지 않았는지? 남자는 보라리도 들지 않아야 한다고 하신 어머니의 생각이 고스란히 남아서, 여성에게 말은 근사하게 하지만 은근히 남성 우월감을 드러내지는 않았을까?

미투 운동에 대한 논쟁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들이 모두 진보적 인사들인 점에 비추어 기획설이 퍼져기도하고, 지목된 어떤 사람들은 억울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Me too) 민중들이 촛불로 권력을 무너뜨렸듯이, 기존에 용인되어 온 불공평한 사회를 다시금 한번 더 바꾸자는 촛불이다. 즉 열들의 반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하면서, 스스로도 삼가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백성의 출애

굽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 출애굽 초기에는 마른 빵도 먹고, 무교병도 먹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희망도 넘칩니다. 그러나 점차 여정이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됩니다. 애들왕이 막아서고, 가다 보니 먹을 것도 떨어지고, 춥고 뜨거운 광야생활이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이 대목을 민수기는 우리 그 때는(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있었고 배는 굶지 않았다. 여기 와보니 고통의 길인데, 이 길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민 21:5). 또 그 원망하던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청동뱀으로 구원해 주십니다(민 21:6-9).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크다고 합니다.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이 크다고 표현합니다.(시 107:17-22)

서신서의 에베소 사람들은 또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과 이방인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때문에 교회 내에서 종족 간에 갈등이 생긴 듯합니다. 종족의 차이, 신앙 때문에 교회가 나뉘자 바울선생은 하나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에베소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난 이방인이었고 율법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그랬더니 이제는 날더러 유대 율법도 배우라고 한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유대 율법을 배우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 바울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에 따르면 주신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뤄진 것이기에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또 요3:16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을 일으킨 여성들의 모습. 타임지의 커버 모델이 됐다. 온라인 캡처.

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또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때로 주춤거리고 힘들 때에도, 이것은 너희들이 하는 일이고 너희들의 의지로 이뤄진 것 아니라 하늘의 뜻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광화문에서 큰 시위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들이 “(그 동안)달라진게 뭐냐. 여전히 똑같지 않냐? 너희들이 대통령도 탄핵하고 난리 피웠는데 뭐가 달라졌는가?”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처럼 과거를 회상하며, 그 과거를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의 고달픔 때문에 미래로 가는 길을 머뭇거리면서, “아! 애굽에 사는 동안 비록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기름진 고기도 있었고, 포도주도 있었다. 그때 우리는 적어도 마른 빵은 먹지 않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중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능력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생’이라 표현한 것 보면 바리새파이고, 학식이 높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 왔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

니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거듭나야, 즉 다시 태어나야 날 볼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공관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의외의 당부를 하십니다. 이처럼 메시아에게는 비밀이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다. 왜 나를 보고도 못 믿느냐.” 이렇게 직접 말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이것 봐라!” 이렇게 생각하신 않았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는 것이 거룩한 전통이라 생각했던 당시입니다. 이 시절에 예수를 보니, 참 멋진 사람 같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 것 같다고 인정했지만, “내가 하나님인데” 너 똑바로 보아라”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니고데모 입장에서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오래 계속됐고, 그 오랫동안 군사독재가 이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택을 입고, 권력을 유지하고, 그 가운데 공부도 많이 하고 학문적으로 잘 정리해 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문민세대는 혼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세대를 보는 그들의 눈은 어떨까요? 왓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착해 보이기는 한데, 과연 국가 운영을 잘 할 수 있을까하는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큰 잘못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법하네’ 까진 인정할 수 있지만 세상을 확 바꾸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합니다. 특히 ‘기득권의 입장에서 이들의 작은 반란까지는 조금 양보하겠지만, 그동안 각인시켜온 기존 질서에 여자들마저 나서서 이렇게 반항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저는 여기까지가 니고데모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 니고데모의 마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민수기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차라리 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고 수줍게 묻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왔는데 날 몰라보느냐?” 하고 질책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벌써 줬을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어두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세상으로 살라는 교훈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밝은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밝은 세상이 오는데 거역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뱀에 물려 나중에 하나님 잘못 했다고 빌지 마시다. 우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여성들의 저런 고통을 진심으로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고, 우리도 그 낮은 자리에 사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세상 구원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나마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던 미투 운동으로 유명 정치인들도 단순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민중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은 정치인들이 잘나서 들어 준 것이 아니다. 소위 진보적 정치인들, 당신네가 잘나서 민중들이 촛불을 들었기에 너희가 그 덕을 본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따라서 진보적 정치인들은 민중들이 촛불을 든 것이 하늘의 거룩한 뜻이었으며,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자기 고백을 먼저 해야 한다. 아울러 민중들의 촛불을 자신에게, 정당에 유리하도록 활용하면서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로도 해석해 봅니다.

어쨌든 촛불 들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덕을 많이 봤잖아요? 지도자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덕을 봤는데 이 덕을 너희들이 잘해서 그걸 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서

요3:16 의 말씀을 다시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 믿으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노력하는 신앙인의 자세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뜻이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잘 판단하는 빛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설교는 지난 2018년 3월 11일 ‘함께 하는 예배’ 공동체 사순절 네번째 주일에베 설교문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도]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사람의 하나님!

저 자신이 판단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아는 척, 보는 척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이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배척하고 진실을 호도하였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저의 시각을 환하게 넓혀 주옵소서,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요9:41)

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를 죄인으로 매도한 바리새인과 같이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눈먼 길잡이들이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에 빠진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였었습니다. 위선으로 세상에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리지 못하고 도리어 죽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보지 못했던 죄가 없었을 것을, 저는 본다고 안다고 하여서 저의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어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봄날의 새 생명이 저의 가슴속에도 찾아오게 하옵소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으로서 생명입니다.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저 봄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고마워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옵소서. 십자가는 구원과 기쁨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십

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값싼 은혜를 배격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복과 은혜만 받고자 하는 태도를 버리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아멘하며 순종하여 믿음과 복을 얻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믿음생활의 중심을 삼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봄날 피어나는 싱그러운 꽃들이 저의 마음속에도 피어나게 하옵소서. 새

봄에는 꽃같이 예쁜 생각을 많이 하면서서 삶도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날이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연요한 묵사는 송실대, 송의여대 교목실장과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장을 역임하였다. 최근 저서로 「사순절의 영성」, 「부활 성령강림」 등이 있다.

